

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어려운 길

고 영 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 서론

물리적 측면이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도서관에 소장되거나 축적되는 것은 지식의 집적체들이며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것 역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학적 관점에서 도서관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식의 집적과 지식의 전달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크게 틀리지 않다. 이 글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의 집적과 전달 측면에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극복해야할 문제점 및 해결 전략을 조망하기 위한 것이다.

2. 도서관의 패러다임

(1) 전통적 패러다임

인류 문화의 발전은 시간을 넘어 전래될 수 있는 형태로 인간이 자기 자신과 그의 세상에 대해 알고 있으며 또 설명해낼 수 있는 내용, 즉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고착화시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구텐베르크 복합체로 지칭되는 인쇄술과 활판술과 더불어 인쇄물에 의한 지식의 집적과정은 수백년간 유효하게 지속되어 왔다. 즉 인쇄물은 수세기에 걸쳐 가장 우세한 인류의 지식 집적체였으며 또한 문화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해온 지식의 확산체였다. 따라서 책은 집적된 지식의 교환도구이며 도서관은 이 집적된 지식의 축적 및 전달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집적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 자명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지식은 물리적으로 지각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보조도구 없이도 인간의 눈을 통

해 접근이 가능한 기록체에 수록되어 있으며”, “인간의 지식은 일단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 인쇄물 형태의 도큐먼트에 집적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적 지식 배열체계는 “지식의 분산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으며, “추가적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지식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매체적 특수성과 지식의 재현형태에 따라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단행본만, 저기에는 잡지만, 이쪽에는 음반만, 저쪽에는 필름만, 여기에는 서지목록만, 저쪽에는 색인집만 ...)

(2)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

오늘날에 있어서 책과 같은 인쇄물은 집합된 지식에 대한 하나의 집적형태일뿐이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책 외에도 다양한 재현형태(텍스트, 음성, 화상, 영상, 멀티)의 새로운 지식 집적체들이(디스켓, 광디스크, CD 복합체, ...) 실제에서 응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통신망의 수용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지금까지 관리 체계상 서로 분리되었던 지식들에 대한 관리 및 재현형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의 집적과 전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표면적 현상의 본질은 디지털화와 새로운 통신기술이다. 디지털화는 상이한 아날로그 코딩 기술과 상이한 전달 채널에 의해 전달되던 메시지들 간의 차이를 감소시킨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유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늘날의 새로운 통신망과 전달 채널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메시지들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메시지의 특성에 의해 선택 채널을 규정하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한 상황으로 되었다 (Wersig 1996).

(3) 새로운 요구

지식의 집적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은 도서관에 대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명제를 제시한다 (이용남 외 1995 : 36).

- 하나는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지식집적체들 상호간에 지식의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술들은 지식의 집적 면에서 책의 복사 가능성과 책의 대체 가능성을 제공하며, 지식의 표현과 재현 측면에 있어서도 인쇄물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식의 집적과 표현에서 누리던 인쇄물의 우세한 지위가 불확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지식 집적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 또 이 기술들의 세대교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기술들의 상호작용 및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지식서비스(천리안, 인터넷, ..)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요구로 발전된다. 한편으로는 도서관에 다양한 지식 기술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관이 다양한 지식서비스 기관들과 전략적 연합을 하거나 또는 이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BMBF 1996).
- 세째로는 지식이 지식기술에 통합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세한 지식 집적형태였던 인쇄물은 특정의 생산 기술을 필요로 하였으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 집적형태에 있어서는 지식의 생산과 이용기술이 거의 동일하게 되었으며 (컴퓨터에 의한 생산과 컴퓨터를 통한 이용), 지식이 바로 이러한 지식기술 속에 들어있다. 이는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의 전달과 관련된 기술적 가능성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식의 제공, 처리방법 및 이용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용남외 1995 : 38).

- 개인적 커뮤니케이션과 매스커뮤니케이션 구분의 불분명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매스커뮤니케이션적인 지식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인 상호작용(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interaction)도 가능하게 되었다.
- 서비스 제공형태의 기술적 통합 : 기존의 지식서비스에 있어서는 특정 기술에 의해 특정 서비스가 생산되었고 이는 다시 특정한 유통기술 및 유통조직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보의 통합적인 생산·유통·수신 기술에 의해 정보서비스에서의 기술적 분화가 극복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재현형태의 지식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 지능성과 편리성 : 주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편리하게 사용되었던 정보·통신기술이 오늘날에 와서는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일반 이용자에게도 편리하게 되었다.
- 통신망화 : 내부통신망기술과 공중통신망과의 연결기술의 발전으로 독립적으로 운용되

던 장치들의 통신망 구축이 용이해졌다.

3. 도서관의 어려운 길

3.1 도서관의 재조직과 합리화

정보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조직들은 조직내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재조직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으며, 여기에는 일자리의 기술화(PC, WS), 내부연결망(LAN, PBX), 새로운 통신서비스(Internet, ISDN, 화상회의)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기술의 도전과 도입은 새로운 방식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구조와 이에 따른 조직변화 및 새로운 업무형태를 필요로 한다. 특히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이나 업무방식 그리고 업무에 관한 지식들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며, 여러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 새로운 업무분할, 기존업무의 통합, 새로운 자격조건, 새로운 서비스 형태, 새로운 규정 등.

물론 도서관이 아직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으며, 또 지금까지의 보수적 가치기준에 의해 오히려 변혁을 망설이는 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 즉 내외적 변혁과 압력이 별로 없는 현상은 한편으로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선행주자들로부터 문제해결과 기술적 세련화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관의 보수적 이미지가 더욱 견고화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심각한 문제점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다른 지식 관련기관, 학술 및 문화기관 그리고 언론기관들과 경쟁관계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도서관은 최근들어 이들 기관과의 경쟁적 관련성의 강도가 점점 세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물론 전문화된 조직의 재구성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이 비용은 근본적으로 합리화의 토대에서 충당될 것이며, 이는 바로 고용감소와 관련된다. 그러나 인력에 의한 편목비용이 편목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에 의해 감소된다면 합리화에 반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후진국에도 좋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합리화를 하지 않아도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볼 경우 국제적 발전,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 및 학문 발전과의 연결점으로서의 도서관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2 지식기술의 집합체로서의 도서관

지식의 다양한 집적형태와 전달형태의 도서관 유입은 지금까지 상이한 장정이나 페이퍼 형태를 처리하는 문제점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수반한다. 호스트와 통신망의 연결, 상이한 CD 설비, 다양한 운영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지식베이스로부터의 다운로드와 같은 기술에 도서관과 사서들은 적응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상당수의 사서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변혁에 비추어 단지 시도적인 것에 불과하며, 또 CD 장치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기술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하다. 여기서의 기술적 완성도란 관리측면에서의 기술적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이용상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즉 전세대의 기술을 토대로한 지식의 원천을 현재 유효한 기술수준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는 최신의 버전을 보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형이거나 성능이 덜 좋거나 전세대의 버전도 같이 보유해야 함을 뜻한다.

다양한 지식 집적형태에의 적응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매체들의 이러한 특성은 도서관과 사서에게 갈림길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책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전통적 도서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Taylor 1988), 도서관이 인쇄물의 철학을 고집하는 것은 확실히 편한 길임에 틀림없으며, 중단기적으로 볼 때 전통적 도서관 형태와 더불어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도서관이 확장된 의미에서의 책, 즉 다양한 지식의 집적형태를 준비하여 제공하지 못하고 책의 보관소로 머문다면 이는 “집적된 지식의 집합체”로서의 요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도서관의 문화적 가치는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사서들이 동의하건 안하건 간에 도서관이 이 길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도서관은 “집합된 지식의 상이하고 다양한 집적형태의 집합체로서의 도서관”이라는 기술적 도전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도전을 수용하는 도서관은 필연적으로 지식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식기술들의 전시장과 같은 형태를 띠게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지식 집적체와 전달체들이 구비된 도서관이 처음에는 매우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바로 적응하는 어린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얼마 안가서 이러한 기술들에 익숙해질 것이다.

3.3 커뮤니케이션 지향적 도서관

새로운 지식 전달기술의 기술적 특성과 더불어 오늘날 지식은 여러 곳에 분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산된 지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어떤 집적형태와의 관련성에 놓여있고 또 분산된 지식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전달 기술이 도서관에 미치게 될 영향은 크게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지식은 여러 물질적 형태 속에 존재하며, 상이한 집적체에 뒤섞여서 유입될 것이고 다양한 변형형태로 표현될 것이며 또 이곳 저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식 전달 기술에 의해 편목작업의 분산화와 자동화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사서는 지식이 발생하는 현장과 접촉하는 것이 매우 자유롭게 되었고, 사서들의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타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기관(출판사, 데이터뱅크, ..)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지식의 가상화가 점점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도서관의 작업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점점 심화되는 지식의 혼란 속에서 망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존재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개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 또는 다른 지식서비스 기관에 있는 여러 지식집적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일뿐 아니라, 연구소, 학회, 학술회의 등 최신 지식의 교환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레이 영역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이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야하며, 이로부터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이라는 사서의 새로운 기능이 형성될 것이다.

3.4 도서관의 이용환경 문제

도서관은 지식의 수집체일뿐아니라 다른 하나의 중요한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이 목적이란 “지식을 수집할뿐아니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관점은 의심 많은 사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배제한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목적성을 견지할 경우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다 : ‘도서관의 목적은 집합된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지식의 이용자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책에 있어서는 이용기술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주로 이용자에게 전가되었다. 이용자는 집으로 책을 가져가서 이를 읽고, 발췌하고 또 오늘날에는 몇가지를 복사한다. 책을 대출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대출하는 것이 별 가치가 없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경우에만 이용자는 도서관 내에서 책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내해야 할 고행의 작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서관의 불편한 이용환경(독서와 작업환경)에 불평없이 적응해 올 수 있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불편한 이용환경은 집안의 편리하고 익숙한 서재가 제공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과자, 차, 적절한 조명, 환풍, 라디오, 음악, ...). 물론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지식의 근원을 집안의 서재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집안의 서재를 그리워하는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도서관의 불편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식 전달체들의 운송이 부분적으로 불가능하며, 지식 전달체의 자유로운 이용이 완전하지 못하고 (디스켓 복사의 제한, 저작권), 지식 전달체가 복합주제적이거나 다주제적이며, 지식 전달체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스스로가 갖추기에는 어려운 특수한 이용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용자 스스로 정보통신망에 의한 지식집적체와의 접근가능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항들은 대체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모든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집적형태에 수록되어 있는 지식의 근원에 실질적 접근을 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식이 이용가능한 곳으로 가는 방법과 이 장소에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지식의 근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 지식의 이용이 다시 중요하게 부각되어진다. 도서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도서관의 지식들도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장소로 간주된다면 도서관에는 다시 매우 중요한 기능들이 생성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도서관이 스스로 소장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소장된 여러 종류의 지식 근원도 항상 접근할 수 있으며 또 지식생산물의 시장적 출판보다 앞서 일어나는 지식의 교환과정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작업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모습들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도서관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는 도서관의 이용환경과 작업공간이 이용자에게 개인적 활동공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작업방식에 적합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모형을 위해서는 물론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조직적,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럴 경우 지식기술을 다루는데 익숙한 이용자는 스스로의 작업계획을 가지고 지식기술을 사용하여 이세상의 지식세계에 접근한 후 이 작업결과를 자신의 지식환경에 옮기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이용자는 이제 자신의 디스켓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자료로부터 복사를 하고자 할 것이고(예, 책으로부터 스캐너를 통해 자신의 디스켓으로) 또 자신의 평가 프로그램을 장착하거나 또는 특정의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작업결과들을 자신의 PC에 저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형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전개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공간은 더이상 전통적 도서관의 불편한 책진열장일 수 없다. 물론 장비들은 소음이 없을 수 없으며, 이러한 장비들이 항상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할 것이고, 모든 요소들이 모든 작업공간에 제공될 수는 없으며, 모든 지식의 근원이 그 수와 양과 형태에 상관없이 다 구비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공간은 필수적으로 매우 생동적인 작업공간이 될 것이다. 이용자는 이 작업공간에서 매우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또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게 될 것이며, 아마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자 할 것이다. 이용자와 사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만 하며,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상의하고 또 정보자원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장치와 사서에 의한 지원체제의 구축을 통해 미래의 도서관은 지식의 근원뿐만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매우 유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신기술과 더불어 나타나는 사서의 소외감을 없앨뿐만아니라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즐거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에의 접근이 기술화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사서가 책과 인간을 도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법을 갖추게 된다면 도서관은 더이상 불편한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즐거운 지식광장”이며 (Wersig 1990), “인간에 적합한 우주로서의 도서관”이다 (에코 1993).

4. 결론

왜 꼭 도서관이 이런 일 즉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도입해야 하는가, 도큐멘테이션 기관과 같은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 질문

은 변화된 상황에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옳은 질문이다. 물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형성되었던 도큐멘테이션의 목적은 도서관이 처리해내지 못하는 자료들을 평가하여 내용적인 관련성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도서관과 도큐멘테이션 간에 이루어졌던 논쟁의 상당 부분은 도서관이 물리적 수집이 아닌 형태 즉 가상의 지식 모음을 원하지 않고 이를 신뢰하지 않았던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도서관은 공간의 가상화와 이에 따른 물리적 수집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일을 감수할 수 없는 하나의 지역적, 공간적 특성을 띤 기관이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나타나는 오늘날의 공간성 문제(지식집적체의 비공간화 문제)는 지식 기술과 통합되어 있는 지식들의 수집과 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또한 지식관리 체계의 분화(도서관과 전문정보서비스기관) 및 매체적 특수성에 따른 지식의 분산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 또는 가상 도서관에 대한 논쟁으로 집약되는 이 문제는 사실은 지식의 세계에서 점점 상실되어가는 도서관과 사서의 중요성을 다시 찾는 전략적 방안인 것이며, 이에 대한 논쟁의 심화는 오히려 이러한 기술적 변혁이 사서와 도서관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집합된 지식을 배열하는 조직자인 도서관과 사서에게 왜 도서관이 이러한 기술 도입을 떠맡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왜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만. 1995. 도서관의 자명성에 대한 정보학적 분석. 국회도서관보 1995(11) : 3-12.
- 고영만. 1996. 정보매체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제 34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 17-35.
- 에코, 움베르토 (Echo, U.). 1993. 철학의 위안 - 제4부 도서관. 서울 : 새물결 (조형준 역).
- 이용남 외. 1995.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 연구보고서 1. 서울 : 정보관리학회.
- BMBF. 1996. Information als Rohstoff für Innovation : Programm der Bundesregierung 1996-2000. Bonn : BMBF-Pressedokumentation.
- Taylor, B. et al. 1988. The Twenty-First Century - Technology's Impact on Academic Research and Law Libraries. Boston : G.K.Hall.
- Wersig, G. 1990. "Technische Herausforderungen zwingen zu neuen Visionen." Paper

to be presented at the 「Vortrag auf dem 21. Österreichischen Bibliothekartag.
」 Sept.4-8,1990. Bergenz.

Wersig, G. 1996. The Information Service of the 21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Sept. 10, 1996.

A. 도서관의 패러다임

(1) 전통적 패러다임

- * 원칙적으로 인간의 지식은 물리적으로 지각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보조 도구 없이도 인간의 눈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기록체에 수록되어 있다.
- * 인간의 지식은 일단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 인쇄물 형태의 도큐먼트에 집적된다.
- * 도서관의 전통적 지식 배열체계는 지식의 분산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2) 새로운 요구

* 지식의 집적 측면 :

- 지식집적체 상호간 지식 전이의 용이화
- 지식 집적형태의 다양화 및 세대교체 기간의 가속화
- 지식과 지식기술의 통합화

* 지식의 전달 측면 :

- 개인적 커뮤니케이션과 매스커뮤니케이션 구분의 불분명화
- 서비스 제공형태의 기술적 통합
- 지능성과 편리성
- 통신망화

※ 서지데이터베이스와 전문/원문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 **Information als Rohstoff für Innovation**
Programm der Bundesregierung 1996 – 2000

BMBF-Pressedokumentation (Aug. 1996)

1. Gestaltung der wissenschaftlichen und technischen Informationsstruktur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1.1 Elektronisches Publizieren

- (a) Modellprojekt Medoc
- (b) Modellprojekt "Der elektronische Verlag"

1.2 Digitale Bibliothek

- (a) Modellprojekt SUBITO
- (b) Modellprojekt DBV OSI
- (c) Modellprojekt TIB QUICK 2000
- (d) Modellprojekt IBIS

2. Innovationsstimulierung der deutschen Wirtschaft durch wissenschaftlich-technische Information

Modellprojekt INSTI mit sieben Aktionslinien :

- (1) Patentrecherchen und Datenbankschublungen
- (2) Modellvorhaben INPAT
- (3) KMU-Patentaktion (in Vorbereitung)
- (4) INSTI-Innovationsbörse
- (5) INSTI-Erfinderclubs
- (6) Erfinderschulungskonzept "INSTI-Innovationstraining"
- (7) INSTI-Netzwerk und Öffentlichkeitsarbeit

B. 도서관의 어려운 길

(1) 도서관의 재조직과 합리화

- * 다른 지식 관련 기관들과의 경쟁 심화
- * 사회의 다른 분야 및 학문 발전과의 연결점으로서의 도서관

(2) 지식기술의 집합체로서의 도서관

- * 집합된 지식의 상이하고 다양한 집적형태의 집합체로서의 도서관
- * 지식기술의 전시장

(3) 커뮤니케이션 지향적 도서관

- * 지식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기관
- * 최신 지식의 교환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레이 영역”과의 연결 강화

(4) 도서관의 이용환경

- * “인간에 적합한 우주”로서의 도서관
- * 즐거운 “지식광장”

※ Eco, Umberto : 인간에 적합한 우주로서의 도서관

* 역설적 묘사 : “형편없는 도서관의 관점에서 본 훌륭한 도서관”

- 1) 장서목록은 가능한 한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야 한다.
- 2) 표제어는 사서가 결정해야 한다.
- 3) 기호는 도저히 정확히 옮겨쓸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 4) 신청과 대출 사이의 시간은 아주 길어야 한다.
- 5) 항상 한번에 한 권씩만 대출되어야 한다.
- 6) 대출증이 있어야만 책을 서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 가능하면 어느 곳에도 복사기를 갖다 놓아선 안된다.
- 8) 사서는 독자를 적으로, 게으름뱅이로, 아니면 일에 매달려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잠재적인 도둑으로 여겨야 한다.
- 9) 거의 모든 직원이 육체적 결함이 있어야 한다.
- 10) 신간안내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게시해 놓아야 한다.
- 11) 대출절차는 모든 사람이 질색할 정도로 복잡해야 한다.
- 12) 관외대출은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몇달이 걸려야 한다.
- 13) 책을 훔치는 일이 가능하면 아주 손쉬워야 한다.
- 14) 개관시간은 근무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은밀하게 노동조합이 동조해 주어야 한다
- 15) 도서관 안에서 요기를 때운 다음 다시 원기를 회복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또 대출한 책을 모두 반환할 때까지는 카페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대출하기 위해 도서관 밖에서 뭔가를 먹게 해서는 안된다.
- 16) 일단 대출된 책은 다음날에는 찾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17) 없는 책을 누가 빌려 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 18) 가능하면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 19) 결국 이용자가 도서관에 발을 디딜 엄두도 못내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